

남원시, 투자유치자문위원 출범

투자 동향 파악·홍보 협력 예정

남원시는 이환주 남원시장 민선 7기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1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남원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경 향유기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투자유치 기본계획수립, 중요시책 등을 자문 및 심의 역할과 남원일반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해 투자 동향 파악과 더불어 홍보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인천항우회장을 맡고 있는 주)스피코(경기도 안산) 장영복 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향후 반기별 1회,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남원일반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장영복 위원장은 "남원시 실정에 맞는 유치전략 수립과 더불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가 기업유치에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투자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환주 시장은 "위원회 활동 결과를 정책반영에 적극 활용, 남원시가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2015년 12월 준공한 남원노압산업단지(3지구) 산업용지 총 25필지 중 21필지를 분양(협약 체결 포함)하고 잔여필지에도 투자의향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기업유치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이환주 남원시장 민선 7기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1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남원시, 국가예산확보 막바지 총력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7개 사업 설명

남원시가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환주 시장은 지난 15일부터 연일 국회를 방문하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과 박종희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지리산권 거점 육아종합지원센터, 산후보건센터 설립의 필요에 대해

설명하며 협조를 구하는 한편, 19일에는 전해철(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간사와 송감석(더불어민주당) 예결소위 위원 등을 만나 친환경 전기열차와 국립치유농업원 설립 등 남원시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도움을 요청했다.

남원시가 총력을 다 해 2020년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리산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국비 10

억)와 ▲남원의료원 공공형 산후조리원 건립(국비 25.5억),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국비 20억)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비 30.4억)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사업(국비 15억) ▲남원시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국비 10억) ▲국도 24호선(인월 서부리) 회전교차로 건설사업(국비 8억) 등 7개 사업이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남원시 주요 사업들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유대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겨울 입맛 사로잡는 딸기 현장지도 나서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여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 딸기 농가 현장 기술 지도에 나섰다.

주·야간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시설하우스 농작물들의 생육환경이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생육부진과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생육관리가 중요하다.

시설하우스 온도는 야간 최저 온도(5℃ 이상)를 유지하기 위해 이중비닐을 피복하여 보온하고, 해가 뜨는 즉시 걷어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생육관리 방법으로는 첫 번째, 액아 및 하엽 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일 수 개화기 5~6매, 결실기 8매 확보), 두 번째, 화방 당 대화방 7~10화, 2화방은 5~7화, 3화방 이

후는 3~5화를 남기고 꽃따기를 실시하고, 적정 세력을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 수정을 향상을 위해서 수분용 별을 넣어주고, 정화방의 1번화가 개화될 무렵 주간온도 14~25℃를 유지해야 한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은 "겨울철 시설하우스에서는 저온과 일조 부족, 과습 등으로 생육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온도관리와 생육환경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립도서관 빛소담 공연단이 19일 생치작은도서관을 찾아 빛과 어둠이 만들어내는 '빛 그림책' 공연을 진행했다.

빛과 어둠이 만들어내는 '빛 그림책'

순창군립도서관 빛소담 공연단 찾아가는 북스타트 공연

순창군립도서관 빛소담(빛과 소리를 담은) 공연단이 19일 생치작은도서관을 찾아 빛과 어둠이 만들어내는 '빛 그림책' 공연을 진행했다.

생치초등학교 1, 2학년과 병설유치원, 시산초등학교 1, 2학년과 병설유치원, 그리고 생치어린이집까지 관내 5개 기관 50여 명의 학생들이 인솔교사 15명과 함께 생치작은도서관에서 빛소담의 그림자극 공연을 관람했다.

'노랑각시 방귀소동'이라는 재미난 동화를 읽어준 다음 빛과 그림자를 통한 연극으로 다시 책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한 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그림자극에 푹 빠져들었다.

북스타트 운동은 1992년, 영국을 시작으로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하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높고

언어습득도 빠르며 사회성도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알려지면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순창군 북스타트 운동' 선포식을 개최한 이래로 연중 도서관을 방문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북스타트데이를 통해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빛 그림책 공연도 북스타트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순창군립도서관 관계자는 "책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노력과 수단의 상징으로 다른 어떤 매체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선의 도구다. 북스타트를 통해 책과 어려서부터 친해진 아이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폐농약 집중 수거기간 운영

이달 29일까지

임실군은 농촌지역의 토양 및 수질 오염 방지에 적극 나섰다.

군은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15일간) 폐농약 집중 수거기간을 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빈 농약병은 마을별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유상 수거하고, 미개봉된 폐농약은 해당 농약 구입처에서 교환 및 반납이 가능했으나, 농가에서 개봉해 쓰고 남은 폐농약은 수거 및 처리체계가 부재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든 농작물에 국

내 사용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어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이 있을 경우,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농약별로 각각 밀봉해 읍·면사무소에 반납하면 된다. 읍·면사무소에 수거된 폐농약은 환경보호과에 인계 후, 폐농약 처리가 가능한 지정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일괄처리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미생물 발효 청국장, 기능성 입증 호남지방 연합학술대회서 발표

최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호남지방 연합학술대회에서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제시됐다. 순창군(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황숙주, 이하 진흥원)이 개발한 토종미생물로 발효한 청국장이 장 건강 개선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나타난 것.

이번 학회는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황숙주, 이하 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식품과학회와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공동주관해 발효미생물과 식품·바이오 분야별 학술 교류와 향후 공동연구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3개 학회가 공동주관으로 연 이번 학회에는 총 6명의 발표자들이 나서 미생물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쏟아내 가운데 제주대학교 생명공학부 윤노타 썬야 교수가 발표한 '사막분변미생물을 이용한 청국장 효과 비교분석'이 눈길을 끌었다.

진흥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한 윤노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토종 고초균을 적용한 청국장을 섭취한 사람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결과 섭취 전에 비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장내 세균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토종 고초균이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유산균' 개발에 청신호를 알렸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동절기 재난예방 나서

남원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긴급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 10월 11일 재난상황실에서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봉사단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대설 및 한파 등 기상 특보가 발표되거나 이에 따른 피해 발생으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 동원 경우를 대비해 파견근무 및 내 집 앞과 집 앞 눈 치우기 등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남원시는 미끄러짐 위험이 있는 시내도로 22개소에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읍면동 주요 도로변에 모래주머니 2만포 비치, 주요도로변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자재를 배부하기로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